

# 포항지부 임단투소식

1호

발행일 : 2012년 4월 24일(화)/발행인 : 황우찬/발행처 : 금속노조 포항지부 교육선전부/전화 : 054)278-1339/www.metallunion.nodong.org

## 4월 19일 1차 집단교섭 열려

### 6월말까지 집중교섭, 7월초 요구안 쟁취를 위해 15만 공동투쟁

2012년 임단협 투쟁이 시작되었다. 지부(지부장 황우찬)는 지난달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임단투 방침을 확정하는데 이어 4월 2일 각 사측에 임단협 요구안을 발송하고, 19일 1차 지부 집단교섭 및 상견례를 가졌다.

2012년 임단협 요구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중앙교섭 요구로써 ‘▲산별최저임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비정규요구 ▲발암물질 요구 ▲노동시간 단축이 있으며, 지부교섭 요구로써 ‘▲임금인상요구(기본급 151,696원 정액인상) ▲조합지부 추가전임 처우보장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복지연금 도입 ▲발암물질 근절을 위한 요구가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각 지회별 보충요구로 구성되었다.

2012년 임단투의 주요흐름은 ‘4월 2일 요구안 발송-4월 12일 중앙교섭 상견례-4월 중말 지부 집단교섭 상견례-5월 임단투 전진대회-6월 4대 요구안 쟁취 전조합원 결의대회, 조정신청(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말)-7월 요구안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8월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다.

2012년 임단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초 15

만 금속노조가 함께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중앙교섭 참여사업장 뿐만 아니라 완성차지부가 함께 7초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한다는 목표아래 현대-기아차 공투본을 구성하였고, 임단투 일정을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수립했다. 또한 8월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투쟁의 중심에 금속노조가 제대로 역할함으로써 타임오프, 창구단일화 등 노동약법을 폐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부는 4월부터 지속적인 교육 선전 등의 활동을 통해 6월7초 총파업투쟁, 8월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투쟁에 현장조합원들이 힘 있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19일 개최된 1차 지부 집단교섭 및 상견례에서 ‘2012년 지부 집단교섭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주 1회 매주 목요일 집단교섭을 개최한다. 2012년 중앙교섭 사용자대표는 한국수드케미 사용자이며, 지부 집단교섭 사용자대표는 삼원강재 사용자이다.

# 쌍용차와 이명박은 22명의 죽음에 답하라!

## 이명박이 2009년 쌍용차 폭력진압 직접지시, 끝까지 책임 지을 것

지난 21일(토) 14시 쌍용차 포위투쟁 및 범국민추모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 1500여명은 굵은 빗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평택역에서 약식집회를 갖고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까지 상여와 22개의 관을 들고 약 6km를 행진했다.

욕으로 세상이 병들어가고, 사람이 병들어서 결국 죽어간다. 소통과 공존의 세상을 위해 모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여전히 굵은 빗발이 몰아치는 가운데 저녁 7시부터는 범국민추모대회가 개최되었다. 2009년 쌍용차 점거투쟁



목숨을 끊은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죽어서 영령이라도 돌아가고자 했던 공장은 이미 경찰병력에 의해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었다. 쌍용차 해고자 동지들과 금속노조 선봉대 동지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봉쇄를 뚫지 못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연행되었다.

결국 정문 앞에 자리를 잡고 조계종 스님들의 집전으로 천도제가 봉행되었다. 조계종 스님들은 “자본의 탐

진압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쌍용차 폭력진압을 직접 지시했다는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의 최근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쌍용차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추모위원회는 범국민추모대회와 문화제를 마무리하며 “전 사회적 연대와 투쟁으로 쌍용차지부의 승리를 도울 것”임을 결의하고 공식적으로 “오는 5월 10일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쌍용차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19일에는 범국민대회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산재사망률 1위 대한민국, 모든 산재의 원인은 자본의 탐욕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인 한국은 2011년 한 해에만 노동자가 2,114명이 산재로 죽었고, 은폐 등으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산재사망 노동자도 적지 않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시민추모위원회가 발족하고 4월 마지막 금주를 추모주간으로 설정, 다양한 추

모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부는 25일(수) 15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개최되는 ‘산재사망 노동자추모, 노동자 건강권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각 지회별로 현수막을 내걸고 현장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산재사망 노동자추모와 노동자건강권쟁취 결의를 높인다.

세계의 노동자들은 1996년부터 매

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있다. 지난 1993년 4월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일하다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188명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당시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회사가 노동자들이 인형을 흠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문을 잠가 놓은 채 일을 시켰기 때문이다.